

한 마리 옛 용은 하늘가에 맴도네

원담 스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목좌선장망풍진(默坐禪窓忘風塵)
청산영리기조흔(靑山影裏幾朝昏)
백운산처일월고(白雲深處一月孤)
회일고룡원천변(回一古龍遠天邊)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상 인연 잊었는데
푸른 산 그림자 속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고
흰 구름 깊은 곳 달은 외로운데
한 마리 옛 용은 하늘가에 맴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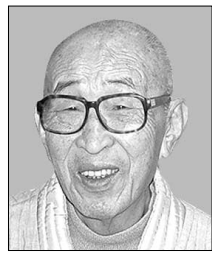
(주장일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일체가 멸한다.
생각과 자하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밟아 깨뜨릴 때에 만리에 구름 없듯이 항상 드러나 나라.
(중략)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心行處)가 멸한 곳이라야 아는 도리니라.
다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應答)하니 제자가 대답하고 스승이 부르는 일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한칼 들고 부처도 조사도 죽임이라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역수단도 살부살조(赤手單刀 殺佛殺祖)
변고금어현오(鱗虎山寺어주빈(辨古今於玄要 驗龍蛇於主賓)
조금강보검 소제죽목정영(操金剛寶劍 掃除竹木精靈)
분사자전위 진열호리심담(奮獅子全威 震裂狐狸心膽)
요식임제종마 청천공벽력(要識臨濟宗慶 青天轟霹靂)
평지기파도(平地起波濤)



맨 손으로 한칼을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임이라
예와 지금을 삼현, 삼오로 써 판단하고
용과 뱀을 빈주구로 일음이라
금강의 보검을 잡고 도깨비를 쏘어내고 사자의 위엄을 떨쳐
어우와 너구리의 뉘를 찢음이라
임제종을 알려는가?
푸른 하늘이 벼락을 치고 평지에 파도가 이는 도다.

각 총림 결제법어(요약) 전문은 buddhanews.com에

돌다리는 보지 못하는 구나

법전 스님

(조계종 중정·해인총림 방장)

조주석교본무성(趙州石橋本無聲)하니
수급유어불이정(水急游魚不易停)이로다
교상지관려마직(橋上只觀驢馬跡)하니
수인감향어가행(誰人敢向御街行)고.



하고 나귀도 건너 가 고 하였고
외나무 다리를 물으니 사람이 하나하나 건너가게 한 다고 하였습니

조주의 돌다리는 본래부터 다짐들이 없어
물이 급해 노는 고기 멈추지 못한다
다리 위에는 말과 당나귀 발자취만 보이니
뉘러서 말을 타고 감히 건너려 하랴.

조주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조주의 돌다리 소문은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나더만 와서 보니 외나무다리만 보입니다.”
이에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그대는 외나무다리만 보고 돌다리는 보지 못했구나.”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건너가게 하느니라.”
“말도 건너가게 하고 나귀도 건너가게 하느니라.”
“어떤 것이 외나무다리입니까?”
“사람을 하나하나 건너가게 하느니라.”
(중략)
이 산승이 결제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주 스님께 돌다리를 물으니 말도 건너가게

다.
그렇다면 조주 선사는 돌다리를 두둔한 것입니까?
나무다리를 두둔한 것입니까?
울여를 한 철 동안 잘 참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경이압랑두비(長鯨已壓浪頭飛)하고
파법교변상전니(破法橋邊尙轉泥)로다
도마도려수회득(度馬度驢誰會得)고
녹양영리노동서(綠楊影裏路東西)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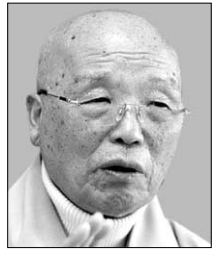
큰고래는 벌써 물결을 누르고서 날아가는데
점름발이 자라는 아직도 다리 결에서 진흙
탕 속을 헤맨다.
말도 건너고 나귀도 건너는 뜻누가 알리오.
푸른 버들 그늘 밑엔 등서로 길이 트였구나.

지혜로운 자 의심 없을때 용맹정진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중략) 고인(古人)의 송(頌)에
경경답지공인지(輕輕踏地恐人知)하러
어소분명경막의(語笑分明更莫疑)하면
지자지금맹제취(智者至今猛提取)하여
막대천명실각계(莫待天明失却鷄)하라
삼꽃살뫼 땅을 밟아서 남이 알까 두
려워하라
말과 웃음에 분명해서 다시 의심이
없거든
지혜 있는 이는 이때 용맹을 다해 정
진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닭 울 때를 놓치



지 말라 하였
다.
대중(大眾)은 결제해제(結制解制)에
상관없이 부
지런히 정진
(精進)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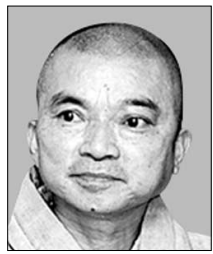
야선도진수수인(野船渡盡無數人)인
데 만강풍우자종횡(滿江風雨自縱橫)이
로다
나뭇바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너
주지만
강에 가득 불어오는 비바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지천에 널린 道 보고도 깨닫지 못하네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삼십년래심검객(三十年来尋劍客)
기회낙엽기주지(幾迴落葉幾抽枝)
지종일견도화후(自從一見桃花後)
직지어금강부의(直至今更不疑)



대오(大悟)한
역대(歷代)조사(祖師)스
님이 특별한
분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와 똑같은 사
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절대로 도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도인
데 우리가 보
지 못하고 깨
닫지 못했습
니다.
분독하게 정
진하고 또 정
진하면 꼭
깨쳐 지는 것
이 기정사실
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이
인간 내에 꼭
우리 본래
의 칼을 찾아
영은 스님처럼
복숭아
꽃을 보도록
합시다.

삼십년 뒤도
칼을 찾던 나
그때여
몇 번이나
앞이 지고
가지가
돌았던
가
복숭아꽃
한 번
스스로
본 뒤
곧바로
오늘에야
다시
의심치
않게
되었네
(중략)

고불총림 새 방장 수산 스님 기자간담회

“공부하는 것은 마구니를 때려치는 것입니다. 이번 안거에는 마음속에 날뛰는 도깨비를 쏘아내세요.”

6월 2일 갑신년 하안거를 맞아 전국 제방 선원과 사암의 대중들이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갔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이번 안거는 각별하다. 현대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서용 스님이 지난해 원적에 든 후 수산지종(壽山知宗) 스님이 방장으로 취임, 처음 열리는 하안거이기 때문이다.

고불총림 하안거 결제에는 운문선원, 고불선원, 비구수 동천선원에 30여명의 눈푸른 남자가 입발했고 외호대중도 50여명 결제했다. 운문선원은 ‘복 마하연 남 운문’으로 불릴 만큼 선방 수좌들에게는 꿈의 수행처이다. 이는 북쪽의 금강산 마하연선방과 함께 남쪽의 백암산 운문선방이 수행에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이다. 운문선원에는 서산, 진묵, 백파, 화명, 환응, 용성 스님 등 쟁쟁한 선승들을 비롯해 근대에는 만암, 인곡, 고암, 운봉, 서용 스님이 있고 현 조계종정 법전 스님이 이곳을 거쳐가 가장 많은 중정을 배출한 선원이기도 하다.

▲ 고불총림 가풍은 무엇인지요?
- 만암 대종사가 1947년 식민지 불교 청산과 민족정기 함양, 승풍진자 등 3대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20여 사암을 모아 백암사에 고불총림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입니다. 초대방장 만암 스님은 ‘수행자의 행(行)’을 강조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되는 수행을 옹납하지 않아 백양사 남자들에게는 ‘모범 백암’이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백양사 대중은



하안거 결제법요식 후 운문선원, 고불선원, 동천선원 수좌들이 방장 수산 스님(사전 앞줄 중앙)과 기념촬영했다.

어디가 수행자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용 스님께서 주장하셨던 ‘참사람운동’이 고불총림을 대표하는 수행운동이겠군요.
- 하루는 만암 스님이 저에게 ‘중 승

(僧)’자를 쓸 줄 아니냐고 묻더군요. 인(人)번에 일찍증(僧)을 붙인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더니 그곳을 다시 물어주세요. 그리고는 사람이 먼저 되고 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사람도 못 되면 서 중이 되어서 안되죠.

“마음 속 마구니 쏘어 내세요”

요즈음 보면 형태만 사람이고 하는 일은 사람답지 않은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용 스님은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참사람운동’을 펼쳤습니다. 물질문명에 급급하다 보니 세상살기는 편리할지 몰라도 인간본성의 파괴로 많은 사회적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참사람운동은 자유자재한 인간의 본래 참모습(無位真人)을 찾아내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 곧 불국정토를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고불총림은 이 운동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갑신년 하안거를 결제했습니다. 대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요?
- 오직 정진 잘 하도록 할 뿐입니다. 불가의 공부와 대학가는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공부하는 것이니 화두

놓치지 않고 여윌하게 밀고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대중이 화합하고 만안, 서용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 하도록 위법망구(佛法忘憂)하고자 합니다.

▲ 산문 밖 제가지들에도 공부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먼저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잠잘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자리를 바로잡아 어디로 마음이 새나가는지 지켜 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안거란 꼭 절에서 다니려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안거를 맞아 어디에 있던 모두들 일념으로 마음을 지켜보아 성불합시다.

백양사=이준엽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 원적 8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와 일봉조사전 낙성법회

=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염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추모대제 =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법하의 법체청안 하시옵고 하시는 제반일들이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불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 초대 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봉 서경보(一鵬 徐京保)존자의 원적 8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와 일봉조사전 낙성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일봉존자의 그 높은 참뜻과 유업을 기리고 다같이 추모하는 법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봉존자 원적 8주기 추모대제 추모 봉행위원회 ◆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6월26일 (음 5.9) 토요일 오전11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 봉 사(一鵬寺)
○ 문 의 : 1)서용 총무원 ☎ (02) 998 8161 ~2 FAX (02)998-8384
2)의령 일봉사 ☎ (055) 572-9990, 7777 FAX (055)572-8444
3) 문 도 회 ☎ (054) 633-1138
4) 각 일봉관련단체 및 각교구 지역본부

- 중 명 : 현봉해 대종사, 김무할 대종사, 조해룡 대종사
○ 고 문 : 각재단 원로 및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의장), 지혜 대종사(조계종 원로부위원장), 김명중(장로부위원장), 유정승(장로의원), 염원각(장로의원), 송원경(장로의원), 이송은(장로의원), 박수암(장로의원), 안통령(장로의원), 이정암(법인이사), 홍학암(보존회의장), 서무공(승가회회장), 김동암(국제승가회장), 김지산(정토종중장), 하정하(법사종중장), 한화관(금강선원총재), 성정담(법왕청신문사장), 나형경, 황원광, 찰스 메르시에카(미국IAEUP 총재), 김호일, 성영락, 원의범(일봉대학원장), 정대혁(동대명예교수), 김영덕(국회의원), 한우상(의령주소), 최현택(의령서장)
○ 지도위원 : 현경원, 이무성, 김진철, 이옥천, 김덕수, 송수안, 박혜강, 사상철, 이한주, 한희숙, 도종묵, 정철석, 최기성, 임경기, 김창락, 남강수, 김활선, 이영봉, 박인근(미국), 이신화(브라질), 이근철(중국), 이재하(미국), 미첼골드(캐나다), 로레벤도벤(LA)
○ 주관협력기관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이사회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종단 / 대한불교 일봉문도회 / 일봉존자 유자보 존협의회 /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단 / 일봉법왕 사상연구소
○ 봉행위원장 : 정동봉(총무원장)
○ 동행 부위원장 : 최해천(총무원 부위원장), 이법문(교육원장), 김원각(포교원장), 서병철(일봉문도회 사무총장)
○ 동행위원 : 전국종도일동, 전국문도일동, 일봉유지보존회의원일동, 호국법사단일동, 법왕사상연구임원일동
○ 추진위원장 : 엄지공(중앙총회의장)
○ 추진 부위원장 : 진대륜(중앙총회 부위원장), 박도인(중앙총회 사무처장), 정유심(부산교구), 김화엄(울산교구), 강삼현(대구교구), 박도안(대전교구), 이보해(강원교구), 이정수(경남교구), 조해광(경북교구), 안법해(경기남부), 임유정(인천교구), 이도해(경기북부), 김혜성(전남교구), 유혜선(전북교구), 박영명(충남교구), 김법청(충북교구), 이현철(제주교구), 강상규(법사단 이사), 배병자(일봉사 약사회장), 정금조(일봉사 지장회장)
○ 기획위원장 : 최용암(호계원장)
○ 기획 부위원장 : 이법사(홍보부장), 이일명(교육국장), 김덕인(법사단 이사)
○ 집행위원장 : 김화엄(감사원장)

- 집행 부위원장 : 김법선(중앙총회 의원), 권연화(사회국장), 권기태(일봉사 신도회장)
○ 집행위원 : 정법성(선거관리위원장)
○ 집행 부위원장 : 장삼준(법사단 이사), 이무용(법사단 이사)
○ 분과 위원회 : 총무 분과위원장 안법해(교육부장) / 재무 분과위원장 김법진(재무부장) / 의전 분과위원장 이정수(경남총무원장) / 설의 분과위원장 김지성(규정부장) / 봉사 분과위원장 장성각(사회부장) / 홍보 분과위원장 박응천(교무부장) / 경호 분과위원장 정철(법사단 단장) / 시설 분과위원장 일봉사 청년회장 /준비 분과위원장 일봉사 신도회 / 인쇄 분과위원장 최혜숙(수도사 회장)
○ 각교구 동위원 : 서 울 이법문 / 부 산 김효산 / 대 구 최석담 /인 천 안도안심 / 대 전 이홍우 /울 산 박지만 /경 기 남 영해안 /경 기 북 박일웅 /강 원 최동암 /경 남 김보광 /경 북 최해동 /전 남 /광 주 김혜성 /전 북 송무봉 /충 남 김침표 /충 북 김법정

불기2548(2004)년 6월 일

일봉존자 원적8주기추모대제 봉행위원장 정 동 봉 대 한 불교 일 봉 문 도 회 중 앙 회 장 김 도 기 사 단 법 인 대 한 불 교 호 국 법 사 단 이 사 장 정 철 재 단 법 인 대 한 불 교 일 봉 선 교 종 이 사 장 김 혜 운 일 봉 존 자 유 지 보 존 협 의 회 공 동 의 장 현 봉 해, 홍 학 암 일 봉 법 왕 사 상 연 구 소 이 사 장 이 준 영 합 장